

##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

본문 : 요 14:12~17

- 김사무엘 선교사

### 하나님의 기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거듭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회개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을 구원하시던 일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하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는 이유도 그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일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유대땅 갈릴리 지방에서 한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여러분이 50여 개 팀으로 20여 개국을 방문해서 그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땅에만 계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중국에, 미얀마에, 인도네시아에, 아프리카에 어디를 가든지 작은 예수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넓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의 빈자리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의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 분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제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 그분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가서 그분의 도장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인감증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감으로 권세와 능력과 함께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의 권세와 도장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물 위로 사람을 걸어가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시했던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시고 세상에서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이 결코 잠잠한 분이 아니며 결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폭풍도 멈추게 하셨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사람도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이름과 그분이 가지고 오신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존귀, 이름,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과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일선에 가보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흥분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소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곳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주님의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이름도 맡겼고 하나님의 영광도 맡겼고 나의 남은 모든 일도 맡겼는데 내 일을 하는 그 사람, 내가 명령하고 부탁하는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으며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35세 때 헌신했는데 그래도 10대에 삶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20년 동안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단 하루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주옥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미련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0여 년 동안에 제 회사도 가져보았고 사장이라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느꼈던 즐거움이나 보람보다 주님을 섬기고 산 20년이 더 보배롭습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제가 주님과 만났던 경험과 주님을 섬기던 20년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고 그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귀가 되어 주님을 등에 태우고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월남으로 갔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이 낫고 얼굴색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때에 참으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타고 갈 나귀를 구하십니다.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면 얼굴이 누렇게 되고 출세를 위해 일하면 눈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영혼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일을 맡아오.”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 ‘예’라고만 하십시오

두번째 주님께서 일을 부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이나 능력이나 수단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라고만 하면 그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회장을 찾아가 ‘보아하니 회사가 가난해보이니까 제가 컴퓨터 하나를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회장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

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족할까봐 돈도 내고 상식도 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회사는 이세상의 어떤 회사보다도 공평하고 이익이 많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산 제물로 드리기로 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헌신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기도는 2천 년 전에 구하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구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모습이 다르지만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실 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갈릴리 해변을 함께 걸으며 밥도 먹고 고기도 잡는 동행은 아닙니다. 성령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시고 생각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같습니다. 단지 보이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정된 지역에 있었지만 보혜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 성령님의 동행

함께 동행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는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이 넓은 길을 택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잘 가고 있는가?’하며 의심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어떤 연인의 위로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고를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지시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멩에를 메겠다’고 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생의 멩에를 같이 메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원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공간간부들에게 검사를 받고 보내주는 사람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형상국은 공간간부들이 세 사람이 서 있는데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저의 가명이 북경에서 온 음악선생인 김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가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제게 “그건 거짓말이잖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위기입니다”라고 했더니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대로 얘기하자면 “전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얼굴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과 섞여 살아도 모르지만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했던 것들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들이 큰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다리가 떨리고 입이 덜덜 떨립니다. 그래도 떳떳하게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나갔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심양에서 왔소.” 이제 저에게 물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붙잡지 않습니다. 태연한 척 앞으로 갔습니다. 돌아서서 왜 안 물어 보냐고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버스에 탔습니다.

내 뒤에 사람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소?” 마치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차에 타고 차가 출발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도록 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그 때 그 사람들이 왜 제게 물어보지 않았지요?”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작은 고기 밖에 잡을 수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 큰 고기를 잡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헌신합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혼자 보내고 ‘내가 지켜볼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저고리에 그을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되고 벽에 부딪히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것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영원히 함께 하리라

또한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길’이나 ‘양’이 아닙니다. 영원은 ‘질’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이 시작이 있으면 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은 ‘질’을 뜻합니다. 함께 있더라도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몸을 맞대고 산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함께 있어도 질적으로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관계입니다.

일선에 나가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숲속에 있거나 움막에 있거나 비가 오거나 혼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은 ‘영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오묘한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순교합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깊은 것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참,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영적인 사실들이 진짜처럼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현실은 아닌데 겉모습으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상투어를 씁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조금도 없으면서 입으로 천국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가 내 귀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현실감과의 거리감 때문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고 나 혼자 주님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내 돈을 다 내놓았는데 주님은 채워 주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타협하고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은 현실감을 여러분에게 주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현실감을 못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이 혼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떠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현실감이 없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개인적으로 맛보아 알지 못하면 차라리 어디 가서 막걸리를 맛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보다 몇 천배 만 배가 더 좋은 하늘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주님이 주신 성령에 취하고 그 분을 내가 경험하고 알 수 있으므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도 또 바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쥐었던 것을 놓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멩에를 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쥐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운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운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십시오.

##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귀한 영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온누리신문